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박진경 (Jinkyung Park)**

김유승 (You-se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현존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 이용자 참여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을 살피고, 사례연구를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일반, 참여, 정책,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 속성으로 운영 주체, 지속 기간, 수집 주체, 기술을 살펴보았다. 기술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종류, Open API 제공 여부, 모바일 웹 제공 여부, 오프라인 아카이브 보유 여부로 다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 방식은 이용자 참여도에 따라 적극적 참여, 허브 방식 참여, 소극적 참여로 구분하고, 각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참여 기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 영역에서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수집정책의 보유 여부와 각 아카이브의 주요 수집물, 수집 범주, 분류 방식, 기술 요소를 논하였다. 서비스는 콘텐츠, 검색,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참여, 정책, 콘텐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측면에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promoting active engagement of users in participatory archives. It focuses on user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digital archives beyond providing simpl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doing so, the study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that analyzes interpretation and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Moreover, it examined several cases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as to how they apply for user participation, policy, and service. As a general property, main participants, duration, and technology were examined. Technology was further subdivided into open source software, availability of Open API, availability of mobile web, and offline archives. Participation method was divided into active participation, hub participation, and passive participation according to degree of user participation, and the participation functions provided by each archive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policy area, terms of us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copyright policy, collection policy, major collections, scope of collections, classification methods, and descriptive elements of each archive were discussed. Services were divided into content, search, and communication area. Based on such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ways for promoting active engagement of users in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in terms of participation, policy, content service, and communication service.

키워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자, 정책, 콘텐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User, Policy, Contents Service, Communication Service

* 본 논문은 2017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katiepark850@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7년 6월 2일 논문심사일자 : 2017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6월 1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2): 219-243, 201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2.219]

1. 시작하는 글

현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억을 공유한다. 참여와 공유의 문화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다. 아카이브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웹 2.0으로 대표되는 개방형 디지털 기술은 이용자들을 기록의 생성, 수집, 활용, 보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참여와 공유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려는 아카이브의 노력을 현실화하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기록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독점했던 아카이브는 권한을 공동체와 공유하고, 그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는 다양한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가 아닌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기억을 공유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존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 이용자 참여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며,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의 공감

과 지지를 얻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기록학 영역의 타 부분에 비해 소략하다. 이중 본 연구와 관련이 높은 연구 성과로는 설문원(2012), 현문수(2014), 박태연, 신동희(2016), 신동희, 김유승(2016) 등의 학술연구가 있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개인과 조직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모색하였고, 현문수(2014)는 노동 아카이브 측면에서 참여의 의미와 참여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은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2014)의 연구에서 실질적 구축으로 논의되었다.

박태연, 신동희(2016)는 사회적 기억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을 분석, 평가하였고, 김수진, 신동희(2016)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 중 이용자 기여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다루었다. 신동희, 김유승(2016)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인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국내 연구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략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반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국외 연구는 이론적 논의로부

터, 구축 및 운영 사례, 운영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Haskins(2007), Shilton and Srinivasan(2007), Huvila(2008), Caswell and Mallick(2014), Allard and Ferris(2015) 등의 연구가 있다.

Haskins(2007)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의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는 아카이브가 유기적 기관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이거나 공격적일 수 있는 일부 이용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전문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hilton과 Srinivasan(2007)은 기록생산자와 기증자의 참여 수준을 수집, 평가, 분류, 기술로 설정하였고, Huvila(2008)는 참여형 아카이브에서 자료 수집과 기술에 한정되었던 이용자들의 역할을 기록의 생성과 맥락화, 활용, 그리고 아카이브 운영으로 확장한 논의를 이끌었다.

De Lange와 Mitchell(2012)은 학생들이 생산한 이미지 자료를 커뮤니티 직원들이 재코딩(re-coding)하는 방식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참여로 인해 디지털 기록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외된 공동체의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Allard and Ferris 2015), 미국 소수이민자 공동체기록 디지털화 프로젝트(Caswell and Mallick 2014)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의와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3.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사회적 맥락에서 참여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Huvila 2015, 359). 특히 정치적 관점에서 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반시민의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적 관점에서 참여란 '시민 참여'라고도 불리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정부는 간접민주주의의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Jenkins et al. (2009, xi-xii)에 따르면, 참여문화란 예술적 표현과 시민참여의 낮은 장벽, 창조와 창조물의 공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리고 숙련자가 초보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비공식적 멘토십을 포함하는 문화다. Jenkins가 구분한 참여문화의 유형으로는 제휴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표현을 위한 커뮤니티, 집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 미디어의 흐름을 형성하는 공간 등이 있다(William 2011, 174).

참여의 문화적 담론은 디지털 기술의 흐름에 따라 클라우드 소싱, 웹 2.0이라는 기술적인 영역의 연구로 이어졌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속성이라 볼 수 있는 '참여'는(Mostmans and Passel 2010, 174), 기록학 영역에서도 주요 개념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Cook 2013, 114).

2000년대 후반, 기록학계에 등장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박태연, 신

동희 2016, 122-123). Cook(2103, 113-116)은 기록학 패러다임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 공동체를 설정하고, 공동체 스스로가 그들의 기록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디지털 공간을 참여형 아카이브로 인식하였다. Theimer(2016)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온라인 환경에서 기록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식과 자원을 기증하고, 그 결과로 보존기록물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조직, 장소, 또는 컬렉션으로 보았다.

Huliva(2008, 25)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핵심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기록의 생산자, 이용자, 관리자 간 역할의 분산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참여형 아카이브에서 정보의 이용가능성은 단순히 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에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자의 심층적 개입 수준을 의미한다. 그는 현재 아카이브의 참여자와 잠재적 이용자 간의 통합과 교류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참여 영역을 기록의 생성에서부터 지속적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으로 확장시켰다.

설문원(2012, 8)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다수의 수집기관이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구축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정의하였다. 그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록의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설정하고, 기록의 원문뿐 아니라 일부 목록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까지를 디지털 아카이브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편,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언급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의 구축, 관리 및 이용에 다수의 공동체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복수의 공동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며, 아카이브의 구축, 유지, 이용에 관여한다. 즉, 참여형 아카이브는 하나 이상의 공동체들이 그들의 권리, 의무, 요구, 관점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치, 신념, 관행을 존중하는 합의된 공간이다(Gilliand and McKemmish 2014, 8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은 첫째,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 둘째, 공동체 스스로를 증거하는 기억의 기록과 공유, 셋째, 이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의 제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수의 수집기관, 공동체, 아키비스트,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구축 및 운영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았다. 아카이브의 범위는 참여자의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모든 형태의 아카이브로 넓게 설정하였다. 또한,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전체 보유 기록이 아닌 일부만을 디지털화 하거나 디지털 목록을 제공하는 아카이브도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함시켰다.

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형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수집주체, 이용자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다(설문원 2012; 김유승 2010;

Williams 2015). 우선, 수집주체에 따른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형은 수집기관 주도형, 수집기관-공동체주도형,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수집기관 주도형 아카이브는 기록 소장기관들이 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에게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 참여하는 유형의 아카이브다. 수집기관 주도형 아카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예산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이용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남겨진 기록을 기록화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의 기록을 두루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수집기관-공동체 주도형 아카이브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수집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록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다. 이 유형은 기존 수집기관 주도형 아카이브에서 참여 주체가 일부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수집기관-공동체 주도형 아카이브에서 수집기관은 이용자와 수집기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동체는 수집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아카이브의 수집기관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공동체 기록

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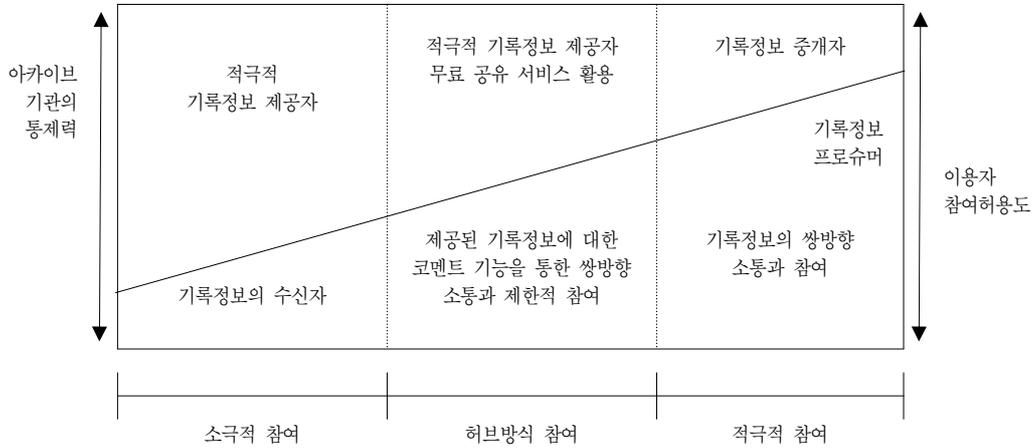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은 아카이브 2.0, OMEKA 등 기록전문가가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다. 이 유형에서 수집기관과 공동체는 이용자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내부인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기록을 제공하는 기증자가 되기도 하고, 기록을 수집, 보존, 활용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이용자 참여의 폭이 가장 넓고 깊게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김유승(2015)의 아카이브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용자 참여 허용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그림 1〉과 같다.

‘적극적 참여 방식’은 이용자의 참여가 극대화된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이용자는 직접 기록정보와 기술, 목록까지 작성, 수정, 편집할 수 있다. 즉, 이용자는 기록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며, 아카이브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중개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1〉 수집주체에 따른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유형	참여주체	편익	
수집기관 주도형	수집기관	소장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용자층 확대, 디지털화 예산의 지원 가능성	
수집기관-공동체 주도형	수집기관, 1개 이상의 공동체	수집기관	소장기록의 균형 및 다양성 제고, 이용자층 확대
		공동체	공동체 기록의 사회적 표출, 전문적 보존기술 및 공간의 확보, 업무 예산지원 가능성
수집기관-공동체-이용자 주도형	수집기관, 공동체, 개인	수집기관	내부인력의 보완, 집단지성 활용
		공동체	내부인력의 보완,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개인	디지털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공동체 소속감과 정체성 강화



〈그림 1〉 아카이브 기관의 통제력과 이용자 참여허용도

‘허브방식’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허브 등 무료 공유서비스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기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 유형의 이용자들은 해당 기록을 수집하거나 코멘트를 남기며, 해당정보에 대한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이러한 공유 활동은 기록의 재맥락화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허브방식의 주요 콘텐츠 제공자는 여전히 아카이브에 소속된 전문가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이용자 참여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제한적이며,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은 기관 혹은 전문가 집단에 있다.

‘소극적 참여 유형’은 다양한 기술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록정보의 일방적 제공자로서 역할을 한다. 아카이브와 전문가 집단은 기록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걸친 모든 과정에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소극적 참여 방식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이용자들은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

로 정보의 수신자 역할을 한다.

5. 사례 연구

본 연구는 각 사례의 주제 적합성, 유형, 참여 기능, 지속 기간 등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사례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첫 번째 선정 요소는 아카이브의 주제였다. 정치,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사회의 기억을 고루 분석하기 위해, 아카이브가 다루는 주제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앞서 분석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유형을 고려하였다. 수집 주제, 참여 허용도, 아카이브의 성격별로 모든 유형의 아카이브가 사례 분석 대상에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셋째, 이용자들의 참여 활동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각 사례는 기관 속성, 참여 기능, 정책,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5.1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인간과기억아카이브(<http://hmarchives.org/>)는 민간 분야의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로, '일상'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 보존, 전시하여 공공기록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2013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toM을 기반으로, 수집기관(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소장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구축된 기관아카이브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AtoM과 OMEKA 시스템을 병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이용자 참여방식은 콘텐츠 공유와 댓글달기다. 콘텐츠는 온라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 공유 가능한 콘텐츠의 유형은 문서류, 사진류, 동영상류, 음성류며, 주제는 '5월 12일의 일기'로 한정된다.¹⁾ 콘텐츠 공유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 홈페이지 '기록기증하기'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유자의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콘텐츠의 제목, 생산일, 거주지, 기술, 태그 등은 선택 입력 사항이다. 이용자는 콘텐츠를 공유할 경우 이용약관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며, 자신이 기증한 기록의 공개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인간과기억아카이브에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Disqus, Facebook, Twitter, Google 계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여야 한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아카이브

브 자체 회원 가입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분류된 범주별로 콘텐츠를 브라우징할 수 있으며,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특정 콘텐츠를 검색할 수도 있다. 상세 검색의 입력 사항은 키워드와 기록정보 필드며, 검색 옵션 선택사항은 기록보존소, 상위 기술 계층, 일반 자료 지정, 미디어 유형, 디지털 객체, 기술 계층, 저작권 상태 등이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비정규적으로 온라인 소식을 발행하여 아카이브의 주요 수집 소식, 수집한 기록물 소개, 새로운 강좌 소식 등을 전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외에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 강좌는 '아카이브 시민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교육 강좌는 활동가, 시스템 담당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강좌 내용은 업무활동 중 효과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활동가 그룹이 도입할 수 있는 기록관리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활용방법 등이다. 강좌는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 유료로 진행된다.

5.2 오픈아카이브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의 기억과 역사를 수집, 정리, 보존하기 위해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다. 오픈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의 디지털화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로 환원하여 민

1)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매년 5월 12일 일기수집 행사를 통해 이용자 제공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당신의 하루를 보관해 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기억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등 비교적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슬로건을 내세워 일상기록 제공을 독려하고 있다.

주화운동 이후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아카이브는 수집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 2015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모바일 웹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개방형 디지털 아카이브다.

오픈아카이브의 이용자 참여 기능은 콘텐츠 공유, 회원 가입, 트랜스크립션(transcription)이다. 이용자 콘텐츠 공유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은 오픈아카이브 홈페이지의 '기증문의'를 통해 콘텐츠 공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사료관 담당자가 기록의 내용, 분량,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공유자와 협의를 거쳐 수집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한다. 기록의 수집은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집된 기록은 사료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등록된다.

이용자들에 의해 공유되어 오픈아카이브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민주화운동사업회가 소유하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 대한민국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의 일부 콘텐츠는 생산자로부터 저작권 및 사용권을 위탁 받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비영리 목적의 2차적 활용이 가능한 사진자료를 분류되어, 개별적으로 저작권 및 사용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콘텐츠 활용 방법은 별도의 안내 공간을 통해 제공된다. 안내 내용에는 사진 활용 목적, 저작권 소유자, 사용료, 제공되는 사진 규격, 사진 인용 사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트랜스크립션 참여 희망자는 반드시 오픈아카이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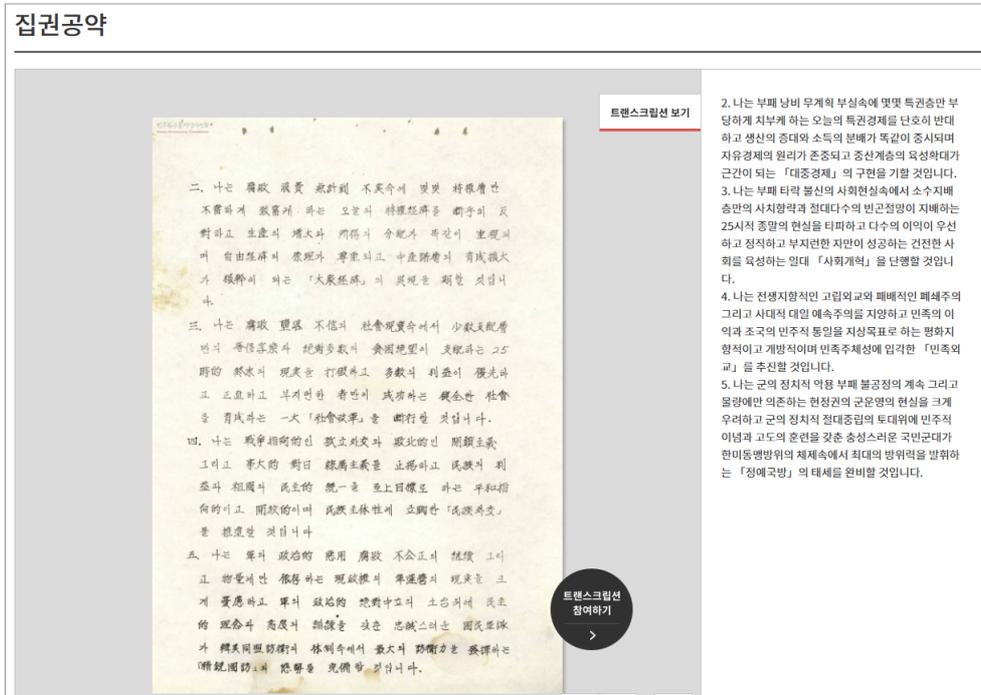
절차는 이메일을 입력한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다. 이용자들은 현재 트랜스크립션이 진행되고 있는 콘텐츠 중 희망 콘텐츠를 선정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트랜스크립션이 완성되면, 아키비스트의 검수 과정을 거치며, 최종 완성본은 아카이브에 전시된다. <그림 2>는 현재 오픈아카이브에 전시 중인 이용자 참여 트랜스크립션이다.

게시가 확정된 트랜스크립션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계정과 해당 사료 페이지를 통해 최종 완성본을 열람할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각종 온, 오프라인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콘텐츠를 스크랩 할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검색기능은 키워드 검색과 상세 검색 기능이다. 상세 검색 기능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콘텐츠의 유형, 생산일자, 정렬기준, 검색범위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상세 검색 기능에는 한국어 외에도 일본어를 비롯한 다국어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조사,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Open API를 제공하고 있다. Open API를 통해 이용자들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 오픈아카이브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Open API 신청은 회원 가입 없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이름, 이메일, 연락처, 소속 기관 및 사용 목적을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오픈아카이브는 온라인 서비스 외에도 오프라인 사료 열람서비스 및 견학프로그램을 제공



〈그림 2〉 오픈아카이브 이용자 참여 트랜스크립션

출처: <http://archives.kdemo.or.kr/isad/view/00876098>. [접속일: 2017.4.25].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료관을 방문하여 일부 공개사료와 보존시설 및 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사료 열람과 견학 신청은 회원 가입 없이, 오픈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5.3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이하 911 아카이브, <http://911digitalarchive.org/>)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에서 벌어졌던 참사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 보존, 서비스하여, 후대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구축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다.

911 아카이브는 2002년 다수의 기관이 참여

한 사회사 프로젝트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참여한 기관으로는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Center, Roy Rosenzweig Center for History & New Media, Alfred Foundation 등이 있다. 911 아카이브는 2001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MEKA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아카이브는 운영하지 않는다.

911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온라인 참여기능은 회원 가입과 콘텐츠 공유다. 911 아카이브 회원 가입은, 누구나 이메일만 입력하면 가능하다. 911 테러관련 콘텐츠의 공유는 홈페이지의 'CONTRIBUTE'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콘텐츠 공유는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은 콘텐츠 공유 참여자가 만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온전히 자신의 창작 콘텐츠만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 방식은 제목과 기술정보를 작성하고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로드 시에도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이용자 공유 콘텐츠는 일정한 평가와 분류 과정을 거쳐 아카이브에서 공유된다.

공유 참여자는 우선 공유하려는 콘텐츠의 유형을 선택하고, 콘텐츠의 제목, 기술정보, 그리고 911 아카이브를 알게 된 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 콘텐츠 공유시 참여자의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의 온라인 전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11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직접 기록을 기술함으로써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이용자 제공 콘텐츠는 별도의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Online User Contribution to September 11 Digital Archives Project' 컬렉션은 911 아카이브의 컬렉션 중 이용자 제공 콘텐츠로만 구성된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당시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이 공유한 문서, 사진, 음성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911 아카이브는 키워드 검색과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 검색 기능은 키워드, 필드, 일련 번호, 컬렉션, 유형, 태그 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따라 선별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아이템별, 컬렉션별 기록 콘텐츠 외에도 911 아카이브는 911

참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FAQ'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아카이브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여 'NEWS'란에 제공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연동과 같은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5.4 People's Collection Wales

People's Collection Wales(이하 PCW, <http://www.peoplescollection.wales>)는 웨일즈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수집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해 2003년에 구축된 공동체 아카이브다. PCW는 웨일즈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야기, 기억, 그리고 기록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디지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PCW는 웨일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이용자들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참여 기관에는 웨일즈 국립 박물관, 웨일즈 국립 도서관, 그리고 고대 및 역사 기념물 왕립 위원회 등이 있다.

PCW는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카이브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을 생성하여, 콘텐츠를 공유하고, 디지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참여를 위해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이메일주소, 소속 집단을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문서, 사진, 비디오, 홈페이지 링크 등 웨일즈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서로의 컬렉션에 코멘트를 남길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이용자의 컬렉션 자체를 수집하여 '즐거찾기'에 등록할 수 있다. 즐거찾기에 등록된 이용자의 아이템은 다시 자신의 컬렉션의 일부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용자 컬렉션의 메인 화면에는 이용자의 정보와 컬렉션의 생성일, 컬렉션을 방문한 이용자수, 컬렉션을 즐거찾기에 추가한 이용자수, 컬렉션을 공유한 이용자수 등이 표시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컬렉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신이 공유한 콘텐츠가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인기 컬렉션은 특별한 컬렉션으로 선정되어 메인 화면에 게시되기도 한다. 이용자들에 의해 PWC에 공유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PWC에 양도되며,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PCW는 이용자가 서로 소통하고, 기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아이템, 컬렉션별, 출처별, 주제별로 콘텐츠를 브라우징할 수 있고, 키워드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PCW는 키워드 검색 외에도 태그,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관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 기능과 제공 콘텐츠의 활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아카이브 이용 가이드와 웨일즈 지역에 관한 짧은 동영상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PCW는 다수의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igital Heritage Stations, People's Collection Wales Champion, Accredited Course 등이 그 예다. Digital Heritage Stations는 IT 기술과 디지털화 장치 이용방법을 교육 및 지원

하는 가상 박물관이다. 가상 박물관을 통해 이용자들은 기록의 디지털화와 보존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People's Collection Wales Champion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활동을 도모하고,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추후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의 디지털화 자격 코스인 Agored Cymru Qualification Framework course에 참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gored Cymru Accerted Course는 심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의 표준 스캔 및 디지털화, 저작권, 메타데이터, 사진 및 문서 구성 등 다양하다. 표준 교육을 모두 이수한 참가자들은 3학점을 수여받는다. 한편, PWC에 업로드 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과 데이터보호 검토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PWC는 아카이브 콘텐츠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5.5 African Activist Archive

African Activist Archive(이하 AAA, <http://africanactivist.msu.edu>)는 1950-1990년대 미국에서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불평등에 저항하는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다. AAA는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주도 아래 African Studies Center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The Center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ichigan State University Libraries, MATRIX 등이 참여하고 있다. AAA는 '사람들의 아카이브' 라는 슬로건 아래,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역 단체들

과 모든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AA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KORA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오로지 디지털 콘텐츠만 제공한다.

AAA의 이용자 참여 기능은 콘텐츠 공유다. AAA는 홈페이지의 'Contribute Content and Comments'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 공유 콘텐츠를 수집하고 있다. 콘텐츠 공유시 입력사항은 이름, 이메일주소, 거주지, 연락처, 자기소개 등이다. 모든 입력 사항은 선택 사항이며,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약관동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콘텐츠 외에도 AAA는 주제와 관련된 기관 및 아카이브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AAA는 흑인 인권운동과 관련된 기관, 아카이브에 보존 가능한 아이템, 홈페이지에 전시 가능한 아이템, 공공 아카이브에 소장된 아이템, 그리고 추후 아카이브에 참여 가능한 활동가에 관한 정보 등을 클라우드 소싱 방식을 이용해 수집하고 있다.

AAA는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연구자들을 위한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 검색은 키워드, 제목, 생성일을 입력하고, 출처, 유형, 컬렉션의 하위 항목을 상세히 선택하도록 한 검색 기능이다. AAA는 흑인인권운동과 관련된 기록 컬렉션의 상세한 소장 정보 및 기술 정보뿐 아니라 각 컬렉션의 소장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AAA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록 컬렉션을 기록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컬렉션 구축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5.6 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

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이하 SAADA, <https://www.saada.org/>)는 미국 남아시아 이민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화하여, 그들의 독자적이며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08년 설립되었다. SAADA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근거한 비영리단체의 주도로 구축되었으며, 별도의 오프라인 수장고 없이 디지털 형태로만 운영된다.

SAADA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으로 기록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기술하는 방식의 참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콘텐츠 공유는 온라인상이 아닌 아카이브 운영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운영자에게 콘텐츠 공유를 신청하면, 운영자가 콘텐츠를 검토하여 수집 여부를 판단한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남아시아 이민자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다. 아카이브의 'Resources' 섹션은 남아시아 이민자의 역사를 소개하고, 주제별로 구체적인 수업 계획서를 제공하여, 교육자와 학생들이 학습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Events'는 SAADA가 과거 참여했거나 참여 예정인 학술활동 및 행사 일정, 행사 장소, 행사 주체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행사 주체기관명 옆에는 각 주최기관 홈페이지의 링크가 있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듯 Events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은 각종 오프라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고,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SAADA 이용자들은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징 기능을 이용하여 유형, 생산자, 생산시기, 생산 지역, 주제, 컬렉션, 언어 등 비교적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어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SAADA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업단체들에게 남아시아 이민자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SAADA는 아카이브 활동과 관련된 소식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뉴스레터와 온라인 매거진 ‘Tides’를 발간하여 남아시아 이민자 공동체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5.7 비교 분석

사례연구를 통해 논의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속성을 일반, 참여, 정책, 서비스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례 비교 분석

속성		아카이브	인간과기억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AAA	SAADA
일반	운영 주체	기관 아카이브	기관 아카이브	역사 프로젝트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역사 프로젝트 아카이브	역사 프로젝트 아카이브	역사 프로젝트 아카이브
	기간	5년	7년	15년	9년	-	9년	
	수집 주체	3개 기관 협력	단일 기관	3개 기관 협력	3개 기관 협력	4개 기관 협력	단일 기관	
	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MEKA, AtoM	-	OMEKA	-	KORA	-
		Open API		○				
		모바일 웹	○	○	○	○		○
오프라인 아카이브		○	○					
참여	히브 방식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히브 방식 참여	소극적 참여		
정책	이용약관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	○	○			
	저작권 정책		○	○	○	○	○	
	수집정책					○	○	
	주요 수집물	일상기록	민주화운동 관련기록	911참사 관련기록	웨일즈 지역 관련기록	미국 흑인액티비스트 관련기록	미국 남아시아 이민자 관련기록	
	수집 범주	문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모든 형태	문서, 이미지, 동영상, 광디스크, 박물, 도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경험담	문서, 이미지, 동영상, 홈페이지 링크	문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모든 형식의 디지털 자료	
	분류	유형, 출처, 주제별	연도, 주제별	유형, 주제별	출처, 주제별	유형, 출처별	유형, 출처 등 11가지	
	기술요소	생산자, 생산일, 식별영역, 구조, 맥락 등	생산자, 생산일, 유형, 기술, 분량 등	작성자, 작성일, 인용정보, 컬렉션, 기술 등	게시자, 작성자, 소유자, 작성일, 기술 등	출처, 유형, 언어, 컬렉션, 기술 등	생산자, 생산일, 출처, 언어, 기술 등	

* - 관련 정보 없음

5.7.1 일반 속성

일반 속성으로는 운영 주체, 지속 기간, 수집 주체, 기술을 살펴보았다. 기술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종류, Open API 제공 여부, 모바일 웹 제공 여부, 오프라인 아카이브 보유 여부로 다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 방식은 이용자 참여도에 따라 적극적 참여, 허브 방식 참여, 소극적 참여로 구분하였고, 정책 영역에서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수집 정책의 보유 여부와 각 아카이브의 주요 수집물, 수집 범주, 분류 방식, 기술 요소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사례의 운영 주체별 유형을 살펴보면, 역사 프로젝트가 세 곳, 기관 아카이브가 두 곳, 그리고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한 곳이었다. 아카이브의 운영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이었다. 수집주체는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수집하는 아카이브가 세 곳, 단일기관 협력이 두 곳, 4개 기관 협력이 한 곳이었다.

분석 대상 사례가 활용하는 기술을 살펴보면, 911 아카이브와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공통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MEKA를, AAA

는 KORA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들 아카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아카이브는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Open API는 오픈아카이브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AAA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는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접근성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국외 아카이브 네 곳 모두는 오로지 디지털 아카이브만 운영하고 있었다.

5.7.2 참여 기능 및 방식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이용자 참여 기능은 콘텐츠 공유, 회원 가입, 댓글달기, 즐겨찾기, 스크랩, 트랜스크립션이었다. 각 사례가 제공하는 이용자 참여 기능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나듯이, 모든 아카이브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이용자 참여 활동은 콘텐츠 공유였다. 콘텐츠 공유 방식은 온라인 방식이 네 곳, 오프라인 공유방식이 두 곳이었다. 회원가입 기능은 오픈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세 곳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 중 911 아카이브는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참여를 허용

<표 3> 이용자 참여 기능 비교

아카이브		인간과기억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AAA	SAADA
참여기능	콘텐츠 공유	○		○	○	○	
	회원 가입		○	○	○		
	댓글달기	○			○		
	즐거찾기		○		○		
	스크랩				○		
	트랜스크립션		○				
	오프라인 활동	교육 과정, 기념일 행사	사료관 열람 및 견학		교육 과정, 봉사활동		교육 활동, 학술 행사

하고 있었고, 오픈아카이브와 PWC는 온라인 참여시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달기와 즐겨찾기 기능은 두 곳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스크랩과 트랜스크립션 기능은 한 곳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PWC는 콘텐츠 제공, 댓글달기, 즐겨찾기, 스크랩 등 가장 많은 온라인 참여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어서 오픈아카이브, 인간과기억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순으로 다양한 온라인 참여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AAA와 SAADA는 콘텐츠 공유 한 가지 기능만 제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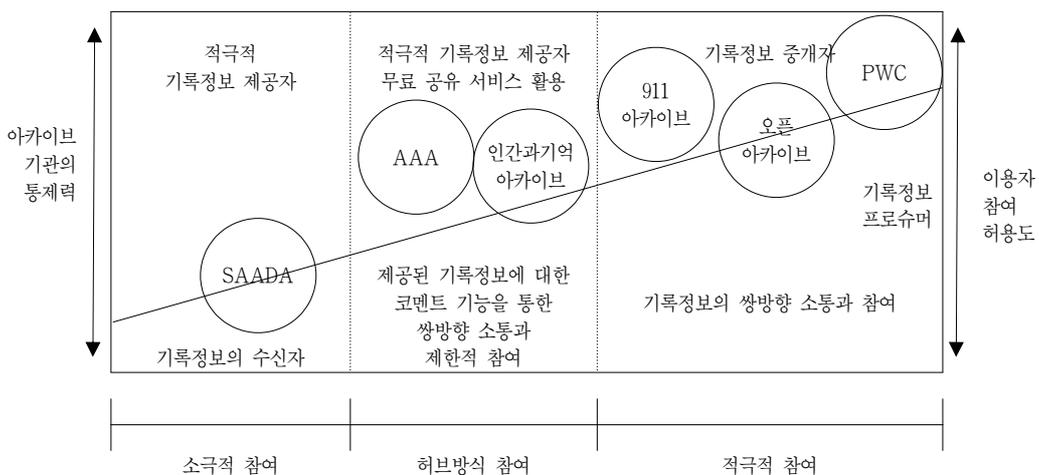
911 아카이브와 AAA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는 이용자에게 오프라인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활동에는 교육과정, 봉사활동, 학술활동, 사료관 견학 등이 포함된다.

분석 대상 사례의 참여 방식은, 적극적 참여 방식이 세 곳으로 가장 많았고, 허브방식이 두 곳, 소극적 참여 방식이 한 곳이었다. 앞서 논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유형 구분방식 중 이용자 참여허용도별 유형 구분에 적용하여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적극적 참여 방식의 아카이브는 PWC, 오픈아카이브, 911 아카이브였다. PWC는 분석 대상 사례 중 이용자 참여 허용도가 가장 높았다. PWC 이용자들은 온라인 콘텐츠 생산뿐 아니라 스크랩, 즐겨찾기, 댓글달기 등 활동을 통해 기록정보의 소비 및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즐겨찾기, 트랜스크립션의 온라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픈아카이브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참여 활동인 트랜스크립션은 이용자들을 콘텐츠 생산 활동에 포함시키고, 이용자 생산물을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참여 기회를 크게 확장하였다. 911 아카이브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911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자신이 공유하려는 콘텐츠의 기술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기록정보의 생산자이자 중개자 역할을 한다.

허브방식의 아카이브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AAA였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온라인



<그림 3> 분석 대상 사례의 이용자 참여 방식

콘텐츠 공유와 댓글달기 활동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이 댓글을 남길 경우, 아카이브 계정이 아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하여 남기도록 함으로써 참여를 제한하였다. AAA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댓글달기 등 기록정보의 소통을 위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소극적 참여 방식의 아카이브는 SAADA였다. SAADA는 콘텐츠 공유 및 교육활동 참여의 기회는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SAADA는 기록정보의 수신자로서 이용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7.3 정책

분석 대상 사례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용 약관은 네 곳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두 곳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저작권 정책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로써 저작권 정책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주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문화된 수집 정책은 국외 아카이브 두 곳에서 갖추고 있었다. 수집정책은 아카이브의 사명, 수집 범위, 유형, 저작권 정보, 선별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모든 분석 대상 아카이브가 수집하는 수집물의 유형은 이미지, 동영상이며, 그 외에도 문서, 오디오, 경험담, 홈페이지 링크, 광디스크, 박물, 도서 등이 수집 대상 유형이었다.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분류 방식을 살펴보면, 주제별 분류방식이 다섯 곳, 유형별 분류 방식과 출처별 분류방식이 네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연도, 생산자, 생산 지역, 생산 시기 등의 콘텐츠 분류 기준이 함께 활용되고 있었다.

제공되는 기술정보 역시 사례별로 상이했다. 기술을 위한 국제표준 ISAD(G)의 기술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911 아카이브는 7개, PWC는 4개, AAA는 8개, SAADA는 10개,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17개, 오픈아카이브는 10개 요소가 표준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오픈아카이브는 ISAD(G) 기준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기술 영역별로 분류된 17가지 기술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분석 대상 사례 중 가장 체계적이며 풍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PWC는 ISAD(G) 요소 중 5가지 요소만을 제공하여, 분석 대상 사례 중 가장 적은 표준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모든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표준기술 요소는 표제, 일자, 생산자명, 범위와 내용이었고, 정리 체계는 다섯 곳에서, 재생산 조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은 네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기술 단위의 규모와 매체, 언어와 자체는 모두 세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으며, 참조코드,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열람조건, 원본의 존재와 위치는 두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출판주기와 아키비스트 주기 정보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만 제공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세부적인 표준 기술 정보는 <표 4>와 같다.

표준기술정보의 상세한 제공은 운영자의 데이터 관리 및 검색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기술요소의 제공은 이용자 측면에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 기술정보의 필

〈표 4〉 표준 기술정보 비교

ISAD(G)		인간과지역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AAA	SAADA
기술영역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	○				
	표제	○	○	○	○	○	○
	일자	○	○	○	○	○	○
	기술계층	○					
백략영역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	○			○	
	생산자명	○	○	○	○	○	○
	행정연혁/개인이력	○					
	기록관리 이력	○					○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	○				
내용과 구조 영역	범위와 내용	○	○	○	○	○	○
	평가, 폐기, 처분일정 정보						
	추가 이관						
	정리체계	○	○	○		○	○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열람조건	○		○			
	재생산 조건		○	○	○		○
	언어와 자체	○				○	○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	○			○	○
	검색도구						
연관자료 영역	원본의 존재와 위치	○					○
	사본의 존재와 위치						
	관련 기술단위						
	출판주기	○					
주기영역	주기						
기술통제 영역	아키비스트 주기	○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						
총계		17	10	7	5	8	10

수 영역을 기본으로 각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는 적정 범위의 기술요소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5.7.4 서비스

분석 대상 사례의 온라인 서비스는 크게 콘텐츠, 검색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서비스 영역의 구분과 분석 항목은 장희정(2012)의 연구와 이윤주(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

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콘텐츠 영역은 기록콘텐츠, 홍보용 콘텐츠, 교육용 콘텐츠 항목으로, 검색 영역은 키워드 검색, 상세검색, 태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Facebook, Twitter, Google 연계 서비스,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분석 대상 사례의 온라인 서비스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온라인 서비스 영역별 비교

분석영역	분석항목	아카이브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오픈 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PWC	AAA	SAADA
		기록콘텐츠	○	○	○	○	○	○
콘텐츠	홍보용 콘텐츠	○			○			○
	교육용 콘텐츠	○			○	○		○
	키워드검색	○	○	○	○	○	○	○
검색	상세검색	○	○	○			○	○
	태그			○		○		
	GIS					○		○
	Facebook 연동	○	○			○	○	○
커뮤니케이션	Twitter 연동	○				○		○
	Disqus 연동	○						
	Google 연동	○				○		
	메일링 리스트			○		○		○

콘텐츠 영역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 사례들은 아카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록 콘텐츠 외에 교육용 콘텐츠와 홍보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교육용 콘텐츠에는 주제 관련 동영상, 수업 계획서 등이, 홍보용 콘텐츠에는 온라인 매거진, 뉴스, 이벤트 정보 등이 포함된다. 교육용 콘텐츠는 네 곳, 홍보용 콘텐츠는 세 곳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각 사례별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종류를 살펴보면, 인간과기억아카이브, 911 아카이브, SAADA는 세 가지 콘텐츠를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픈아카이브는 오로지 기록 콘텐츠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아카이브의 검색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 상세 검색, 태그, GIS 등이었다. 모든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PWC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는 상세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태그와 GIS 검색 기능은 두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분석 대상 사례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수를 살펴보면,

각 사례별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사례들은 Facebook, Twitter, Google 등 대중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과 연동하여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었으며,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아카이브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Facebook은 다섯 곳의 아카이브에서 연동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였으며, 세 곳이 Twitter, 두 곳이 Google, 한 곳이 Disqus와 연동하고 있었다. 메일링 리스트는 세 곳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사례들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수를 살펴보면, 911 아카이브를 제외한 모든 아카이브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PWC는 네 가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SAADA는 세 가지, 오픈아카이브는 두 가지, AAA는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911 아카이브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5.8 문제점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대상 아카이브들은 참여형 아카이브로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다른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를 참여, 정책, 서비스 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문제점 분석

영역	아카이브	문제점
참여	A	댓글달기 참여 제한
	B	트랜스크립션 참여 제한
	C	오프라인 참여 없음
	D	온라인 참여 제한
	E	-
	F	온라인 참여 허용도 낮음
정책	A	전문용어 과다사용, 유사용어 혼재 사용, 이용관련 가이드 없음
	B	중복 분류, 유사용어 혼재 사용
	C	-
	D	-
	E	접근성, 활용성 낮은 콘텐츠 전시 및 분류 방식
	F	-
서비스	A	-
	B	콘텐츠 다양성 부족
	C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없음
	D	-
	E	콘텐츠 다양성 부족
	F	콘텐츠 다양성 부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족

A: 인간과기억아카이브 B: 오픈아카이브 C: 911 아카이브
D: PWC E: AAA F: SAADA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정책과 참여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드러냈다. 정책적 측면의 문제로는 첫째, 성문화된 가이드라인의 부재, 둘째, 아이템과 컬렉션 주제의 불일치, 셋째, 전문용어의 부적절한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인간과기

억아카이브는 이용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며, 그 외 아카이브 이용 관련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아카이브가 컬렉션 주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복수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으며, 콘텐츠 기술정보에 '기술계층', '디지털 객체 정보' 등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컬렉션', '전시 컬렉션' 등 비슷한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카이브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사용상 혼동을 일으키고, 접근과 참여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참여 측면의 문제는 댓글달기 참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아카이브 자체 회원 가입은 할 수 없으며, Facebook, Twitter, Google, Disqus 중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야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트랜스크립션 참여 기회를 아카이브 회원에게만 제공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제한하고 있고, 분류 방식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자료 컬렉션', '자료 콘텐츠' 등 이용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콘텐츠 중 일부는 복수의 컬렉션에 속하기도 한다. 기록콘텐츠 외의 다른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비스 측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911 디지털 아카이브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참여 기능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PWC는 온라인 참여시 회원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어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는 일부 이용자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한편, AAA는 분류 및 전시 방식에 있어 다

수의 문제점이 있었다. 주제별, 유형별로 분류된 콘텐츠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출처별 분류의 경우 국가별, 지역별 구분이 중복된다. 출처별로 분류된 컬렉션의 세부 항목은 수백 개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한 페이지에 전시되어 있다. 관련 기관 소개 페이지 또한 235개의 기관정보를 한 페이지에 전시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분류와 전시 방식은 기록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측면의 한계점은 콘텐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SAADA의 기록의 수집, 선별, 분류 과정은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다음에서는 앞서의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을 참여, 정책, 서비스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6.1 이용자 참여 활성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을 배타적으로 관리, 활용했던 기존의 아카이브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열린 디지털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참여 기능 안내 부족, 아카이브 용어의 전문성, 온라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참여 기회 등은 이용자 참여의 폭을 제한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활성화를 모색한다면, 다음 사항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아카이브의 정체성과 이용자 역할에 대한 명확하고 친근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의 목적과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여 기능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용자들에게 아카이브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록과 기록관리 용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메인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제에 관한 간단한 배경지식과 해설이 보충된다면,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참여 기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콘텐츠 공유, 트랜스크립션, 즐겨찾기 등 참여 기능을 이용할 때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 콘텐츠의 디지털 전시 가능 여부 등은 공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념행사, 견학, 실습 등 오프라인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911 아카이브와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는 주기적으로 기념일 행사를 개최하여, 이용자와 이용자 공유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기록물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아카이브를 알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2 정책 수립 및 제공의 개선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 중심의 열린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전문용어 과다사용, 유사용어 혼재 사용, 이용 가이드의 부재 등은 이러한 지향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고 활발히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의 기능과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카이브의 정책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자세한 이용 가이드와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 공유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에 관한 성문화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명확하고 체계화된 정책과 가이드는 아카이브의 목적과 정체성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공감과 관심을 얻고, 참여를 독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성문화된 정책과 함께 이용 가이드라인을 짧은 동영상을 제공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용과 접근이 좀 더 용이한 방식으로 전시하여야 한다. 분류 기준에는 유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 아이템이 복수의 컬렉션에 중복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이트맵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검색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콘텐츠 전시 방식을 활용한다면,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템 수가 많은 컬렉션의 경우, 주제별 연관 아이템을 슬라이드쇼나 필름 영상으로 가공하여 전시한다면, 콘텐츠 활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콘텐츠 대한 배경과 맥락을 쉽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 많기에 난해한 단어, 상징성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쉬운 해설과 배경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술정보는 표준 기술정보인 표제, 생산일, 생산자, 내용, 출처 위주로 제공하고,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6.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확장

이용자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과정에 이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카이브 운영에 이용자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카이브 권한의 공유와 개방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는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아카이브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공유한 콘텐츠를 가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가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적인 가공이 필요한 경우, 가공된 결과물을 이용자와 나누고,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면, 더 큰 관심과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참여형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을 강화하여,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프로모션 방식을 택하는 데 있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대중적인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검색 포털, 연관 사이트 등 이미 이용자를 확보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한다면, 더 많은 이용자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것은 아카이브가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로 아카이브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검색 포털에 콘텐츠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서비스를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나눈다는 것은 그들의 이용자 역시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운영자, 이용자-이용자 사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활발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들과 대면하는 방법이다. 정보 소외계층의 문제는 디지털 환경의 태생적 문제점 중 하나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단순히 참여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소외된 공동체를 아카이

브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카이브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은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6.4 콘텐츠 서비스의 개선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속적으로 이용자를 아카이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중 하나가 교육용 콘텐츠다. 교육용 콘텐츠는 이용자의 흥미를 얻음과 동시에 아카이브의 주제와 활용법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동영상, 무빙 이미지, 샌드 아트 등 시각적 표현기술을 활용하여 아카이브의 주제와 기능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오픈아카이브와 같이 트랜스크립션 활동에 이용자들을 참여하게 한다면,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 경험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원자료를 2차 콘텐츠로 가공하는 경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있다. 우선, 디지털 포맷의 문서자료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오래된 문서나 필사본을 스캔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하게 훼손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의 경우 트랜스크립션을 함께 제공

해야 한다. 방대한 내용의 문서 스캔자료는 이용자들이 한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션, 인포그래픽, 무빙 이미지, 샌드아트 등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해상도 역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한다.

7. 맺는 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이용자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적 변화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다양한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의 편익과 적극적 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수의 아카이브는 참여와 공유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방형 디지털 기술은 참여와 공유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려는 아카이브의 노력을 현실화했다. 기록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독점했던 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를 살피고,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낮은 인지도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고 활성화 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의 논의와 시도는 사회 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의 기억을 남겨야 하는 아카이브 역할의 실천이다.

본 연구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작은 걸음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수진, 신동희. 201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기록학연구』, 49: 5-49.
- 김유승. 2010.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31-52.
- 박태연, 신동희. 2016.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21-150.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신동희,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 이윤주. 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147-200.
- 장희정. 2012.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51-70.
- 현문수. 2014. 로컬리티 아카이브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 설계. 『기록학연구』, 41: 3-38.
-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 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42: 245-285.
- Allard, D. and S. Ferris. 2015. "Antiviolence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Knowledge, Creation, Community, Mobilization, and Social Justice through a Participatory Archiving Approach." *Library Trends*, 64(2): 360-383.
- Caswell, M. and S. Mallick. 2014. "Collecting the Easily Missed Stories: Digital Participatory Microhistory and the 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 *Archives and Manuscripts*, 42(1): 73-86.
- Cook, T.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2): 95-120.
- De Lange, N. and C. Mitchell. 2012. "Community Health Workers Working the Digital Archive: A Case for Looking at Participatory Archiving in Studying Stigma in the Context of HIV and AID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7(1): 7.
- Gilliand, A. and S. McKemmish. 2014. "The Role of Participatory Archives in Furthering Human Rights, Reconciliation, and Recovery." *Alanti*, 24(1): 79-88.
- Haskins, E. 2007. "Between Archives and Participation: Public Memory in a Digital Age." *Rhetoric Society Quarterly*, 37: 401-422.
- Huvila, I. 2008.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s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s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1): 15-36.
- Huvila, I. 2015. "The Unbearable Lightness of Participating? Revisiting the Discourse of "Participation" in Archival Literature." *Journal of Documentation*, 71(2): 358-386.
- Jenkins, H., R. Purushotma, M. Weigel, K. Clinton, and A. J. Robison. 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Mostmans, L. and E. Van Passel. 2010. "Audiovisual Collections in a Digital Culture: Reflections on Providers and Users of Digital Audiovisual Heritage in Flanders."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in Tartu*, 14-16.
- Shilton, K. and R. Srinivasan. 2007.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87-101.

- Williams, A. 2015.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in Digital Repositories." *The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9(3): 368-377.
- William, P. J. 2011. *Subcultural Theory: Traditions and Concepts*. Cambridge: Polit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yun, Moonsoo. 2014. "Designing a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as Locality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1: 3-38.
- Hyun, Moonsoo, Bobae Jeon, and Dong-Hyun Lee. 2014. "Implementing a Model for Developing Participatory Labor Archives for Shipbuilding Labor Digital Archives in Young-do,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2: 245-285.
- Jang, Hee-Jung. 2012. "A Study on Evaluation of National Archives Websi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51-70.
- Kim, Su-jin and Donghee Sinn. 2016. "Copyright Issues to User-Contributed Content in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9: 5-49.
- Kim, You-seung. 2010. "A Theoretical Study on Establishing Archive 2.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2): 31-52.
- Lee, Yoon-Ju. 2007. "A Study on the Evaluating Standards On-Line Service for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16: 147-200.
- Park, Taeyeon and Donghee Sinn. 2016. "Evaluation of Open-source Software for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Understanding System Requirements for No Gun Ri Digit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121-150.
-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2: 3-44.
- Sinn, Donghee and You-seung Kim. 201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3): 1-30.